

# 유보통합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미래 연구방향

##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n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백지희<sup>1</sup>

Jeehee Baek<sup>1</sup>

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실시된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의 유보통합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연구주제를 체계화하고 유보통합에 관한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유아교육 및 보육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유보통합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2013년 이후 발표된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의 유보통합 관련 연구를 (1) 정책적 측면, (2) 교육과정 통합 측면, (3) 교사 양성과 지원 측면, (4) 부모와 가정의 역할 측면의 네 가지 연구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관련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추후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체계화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논의된 다양한 쟁점을 파악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하여 더 연구되어야 할 분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유보통합, 정책 통합, 교육과정 통합, 교사 양성 및 지원, 부모와 가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rends in research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presented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atized research topics, and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hich has been discussed since 2013, was classified into four research areas: (1) policy aspects, (2) curriculum integration aspects, (3) teacher training and support aspects, and (4) the role of parents and families. The study presents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major research in each area. Finally, by integrat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study systematizes future research topics that can be discussed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proposals and contribute to th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he future.

Keyword :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tegration, curriculum integration, teacher training and support, roles of parents and families

<sup>1</sup>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oongui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Assitant Professor]  
e-mail: stateliness@sewu.ac.kr

\* 이 논문은 송의여자대학교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ceived(November 18, 2024), Review Result(1st: November 30, 2024), Accepted(December 11, 2024), Published(December 31, 2024)



© 2024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 1. 서론

유보통합은 우리나라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여 영유아에게 더 일관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 속에서 줄어든 영유아 수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1]. 상당 기간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온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유보통합을 국정 과제 정책으로 설정하고 공청회, 토론회, 정책대회 등을 거치며 합의를 더해가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연구자들도 유보통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고찰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면서 중복된 행정체계와 지원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관 부서가 다른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012년 만 3-5세 누리과정 개발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과정 일부를 통합하였다. 그러나 고영미 등 [2]은 기관의 운영은 여전히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제도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교육 및 돌봄 서비스의 격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원화된 체제는 이용자인 영유아와 그들의 부모에게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모든 아동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 제시된 유보통합 관련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유보통합에 요구되는 다양한 관점을 도출하여 정리함으로써 현재까지 논의가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고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의 유보통합 관련 연구

### 2.1 정책적 측면에서 본 유보통합

유보통합은 부처의 이원화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은 주관부서와 정책 통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주로 유보통합의 목적과 필요성, 법적·행정적 과제,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논의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행정이 여러 기관과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3][4].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 및 권한 조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주관부서 일원화를 제기하였다. 이에 최근 유보통합의 주관부서는 교육

부로 통합되는 것이 결정되었다.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함도 강조된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관된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5]. 이원화된 제도 속에서 수요자인 부모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지만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에는 반드시 실수요자인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등의 교육적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함도 강조한다 [6].

제도적으로도 유아교육과 보육은 각각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의 근간 아래에 있다. 법률의 이원화는 우리나라의 영유아가 보육과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로써 유보통합을 달성할 것을 촉구하며 단일 법률 제정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7].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충분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합 교육과정과 보육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8]. 이러한 관점에서 유보통합 이후 재정 및 행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9]. 또한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한 자원 분배가 필요하다. 유보통합 정책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춘 재정 및 시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단위의 연구를 기반으로 유보통합 수행해야함을 시사하였다.

## 2.2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 유보통합

2012년에 개발되고 2019년에 개정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10]. 누리과정의 개발로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유보통합 과정에서 만 0세에서 2세의 보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유보통합에서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교육과 양육의 기능을 균형 있게 통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적 목표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정서, 신체, 인지, 사회성 등)을 위한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된다. 통합 교육과정은 유연해야 하며, 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과 요구를 반영하여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놀이 중심의 학습, 탐구 활동,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11].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설계 및 구축이 연구되고 있다 [12]. 유아기에는 놀이가 학습의 주된 수단이 되며, 놀이를 통해 유아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통합되는 과정에서도 놀이 기반 학습

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연구는 제안한다. 이에 더하여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디지털 역량 강화는 영유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제시하였다.

교사들이 통합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 재교육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교육 기관에서는 통합 교육과정의 목적과 실천 방법에 대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보통합 환경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13].

통합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의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강조된다.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실제로 유아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과정은 모든 유아의 발달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유아들이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2.3 교사 양성과 지원 측면에서 본 유보통합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유아교육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및 양성 과정을 통합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구는 강조한다 [13]. 이를 통해 기존의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역할 차이를 줄이고, 통합된 교육 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자격 요건을 표준화하는 것도 주요하게 대두된 문제이다. 이는 교사 간의 전문성 차이를 줄이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장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서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4].

유보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연수와 워크숍을 제공해야 한다 [15]. 특히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놀이 중심 수업, 발달심리, 문제행동 지도법 등의 내용이 강조되는데, 그간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이라는 성격이 다른 현장에서 영유아를 만나온 교사는 주요하게 상호작용해 온 대상이 달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유치원에 재직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현재까지 만 0-2세에 해당하는 영아를 만날 기회가 없어 상대적으로 영아 관련 발달 지식이나 상호작용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관련 연구들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그간 경험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16]. 이를 통해 교사들은 실무 경험과 교육적 철학을 교류하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보통합 환경에서 중요한 문제는 주관 부처가 달라 그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다른 처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유보통합이 진행된 후에는 교사가 더욱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급여와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 송경희와 김태연의 연구 [15]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직무 변화와 업무 부담이 급여 및 복지 혜택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교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을 비롯한 모든 기관의 교사 처우를 국공립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사와 보육교사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실 내 교구 및 시설을 보강하고 교사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상담 및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유보통합 환경에서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보육 교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맞춤형 컨설팅과 힐링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만족스러워하고 있는데 유보통합이 되어 주관부서가 교육부로 이관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7]. 교사들이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미리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교사들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유보통합 정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유보통합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크게 확장되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기관이 교사들에게 충분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교사들이 통합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2.4 부모와 가정의 역할 측면에서 본 유보통합

유보통합에서 부모의 인식과 가정의 역할은 유아의 발달과 교육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의 인식 제고와 가정의 적극적 참여는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교육과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가정에서도 일관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부모가 유보통합의 목적과 장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수록, 가정에서 일관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모가 유보통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가정에서도 학교의 교육 방침과 연계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성화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유보통합 관련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하였다 [18]. 그러나 박창현과 황지선의 연구 [19]에서는 아직까지 학부모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이나 장단점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유보통합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유리와 권정윤의 연구 [20]에서는 유보통합의 개념, 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가정 내 실천 방안을 안내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참여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혼란이 올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한다고 시사한다.

통합된 교육기관과 부모가 유보통합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가 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교육 활동을 실천할 때, 유아가 가정과 교육기관 간의 일관된 지도를 받게 된다. 특히, 유아교육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가정에서도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21].

이와 같은 연구들은 부모가 유보통합을 이해하고 이를 가정에서 실천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된 교육과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과 연계가 강조되며, 이를 통해 유아에게 일관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다.

### 3. 유보통합 관련 연구의 향후 연구방향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 제시된 다양한 유보통합 관련 연구주제를 종합하여 향후 연구되어야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현재까지 유보통합에 관한 연구는 크게 1) 정책적 측면, 2) 교육과정 통합 측면, 3) 교사 양성과 지원 측면, 4) 부모와 가정의 역할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의 단계로 구분한다 [22]. 그리고 단계별로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정책목표의 적합성과 계획내용의 충실성을,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정성을, 마지막으로 정책성과에서는 정책목표의 달성도와 정책효과성을 평가한다. 유보통합은 정책형성 중 계획내용을 충실성을 검토하며 정책집행을 도모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로 진행되어 온 연구동향 내에서 다음 단계를 위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은 하나의 주관부서가 일임하여 정책실현을 하고자 한다. 이

에 따라 그간 이원화되어 운영된 여러 행정 조직의 역할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행정기관 및 부서, 제도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평가제도를 통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왔지만 이 또한 별도로 운영 및 실시되어왔다. 평가지표 또한 상이하게 적용되어 왔던 관계로 평가지표의 재구성, 평가위원의 자격 검토, 독립된 평가기관 등의 확보 등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된 틀로 묶어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법적 사항을 검토하고 정책의 원만한 실현을 위한 법과 체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보통합을 위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개발될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통합된 만 0-5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발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실현할 교사에게 충실한 교육이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교사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추후 연구과제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연구동향에서 강조되었듯이, 유보통합은 부모의 인식과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과 가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연구되어야 한다. 가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자료나 가정 연계 활동 가이드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은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또한 부모는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는 다른 학부모들과 서로 의지한다. 따라서 부모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를 비롯한 부모, 가정에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성 관련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시행과제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며 실시된 후, 달성도와 효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유보통합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제도, 교육과정, 교사 및 부모 관련 측면에서 각기 유보통합의 달성도와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은 궁극적으로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유아의 공정한 출발과 교육평등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미치는 영향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유보통합의 지역별 비교 연구, 유보통합과 관련된 교육 인프라 등과 같은 주제로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연구가 향후 제안된다.

#### 4. 결론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유아, 부모, 기관, 사회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본 국정과제는 오랜 기간 난

향을 겪다 최근에 시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온, 비슷하지만 매우 다른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유보통합이 가지고 있는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유보통합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주요하게 논의된 쟁점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연구동향이 주요하게 1) 정책적 측면, 2) 교육과정 측면, 3) 교사 양성과 지원 측면, 4) 부모와 가정의 역할 측면의 네 가지 연구 영역으로 분류하고 주요 내용을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주제별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가 부족한 의제를 제시하여 앞으로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의제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보통합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mplementation plan for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nsp.nanet.go.kr,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35647>, (accessed November 1, 2024).
- [2] Y. Go, Y. H. Seo, S. J. Lim, S. Park, "The direction and measures of each stage of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hildcare policy based on the early childhood school system",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42, no. 6, December 2022, pp. 541-570, doi: 10.18023/kjece.2022.42.6.023.
- [3] H. R. Kim, K. Lee, "Issues of policy of integrating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for young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and exploring methods of improving the present polic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4, November 2021, pp. 33-53.
- [4] G. Ko, "An analysis on the awareness of teachers and parents abou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tegration polic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6, December 2020, pp. 17-32, doi: 10.22143/HSS21.11.6.2.
- [5] Y. M. Seo, "Policy considerations on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Kore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vol. 23, no. 2, December 2023, pp. 331-367, doi: 10.35224/kapd.2023.23.2.011.
- [6] D. Kim, Y. H. Pack, "News trends on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using topic model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8, no. 3, June 2023, pp. 297-313, doi: 10.20437/KOAECE28-3-13.
- [7] S. Hwang, S. Kim, "A study on the integrated method of child care ac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lkam Law Review*, vol. 54, April 2023, pp. 365-392, doi: 10.35148/ilsilr.2023.54.365.
- [8] K. Song, "A study on financial support system that integrat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based on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Nuri curriculum",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 26, no. 1, February 2017, pp. 27-44, doi: 10.46967/jefe.2017.26.1.27.

- [9] S. H. Ji, S. H. Kim,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special childcare policy budget and related official's perception in the integr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cusing on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do", *Journal of Public Policy Studies*, vol. 41, no. 1, April 2024, pp. 231-256, doi: 10.33471/ILA.41.1.9.
- [10]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Guidebook,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 [11] Y. Lee, J. H. Kim, M. Lee, "Analysis of the Nuri-policy & need for integration of education and child care",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vol. 9, no. 3, December 2017, pp. 385-408, doi: 10.22809/nars.2017.9.3.016.
- [12] E. Choi, E. Kim, J. Koo, M. Kim, S. Lee, H. Jang, W. Lee, Y. Lim, H. Kwon, Y. Kim, J. Kim, Y. Shin, J. Jeong, S. Lim, E. Kim, Y. Kim, G. Park, H. Lee, "Future-orien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design and system establishment plan(I): Exploration of future-orien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design plans."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jong, Korea, Collaborative Research Series 23-21-01, May 2023. [Online]. Available: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0&otp\\_id=OTP\\_0000000000012279](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0&otp_id=OTP_0000000000012279).
- [13] D. Kim, "Qualifications for teachers of 0-5-year-old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centered training system and a teacher qualification plan for existing teachers after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8, no. 3, June 2023, pp. 1-27, doi: 10.20437/KOAECE28-3-01.
- [14] T. Park, S. Kim, "Perception and demand for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of teachers and directors of 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42, no. 1, March 2024, pp. 131-155, doi: 10.22327/kei.2024.42.1.131.
- [15] K. Song, T. Kim,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for the teacher qualification of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n prepa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39, March 2023, pp. 25-45, doi: 10.37918/kce.2023.3.139.25.
- [16] I. Kim, "Teacher Retraining Strategi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tegration: Focusing on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jong, Korea, Policy Research Series 2023-06, June 2023. [Online]. Available: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8326](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8326).
- [17] K. Yun, "Qualitative study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Si/Gun/Gu child care support centers related to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7, no. 4, December 2023, pp. 35-59, doi: 10.22590/ecee.2023.27.4.35.
- [18] S. Ji, "A study on parents'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kindergarten integration policy implementation: First, focusing on implementation tasks and action plan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22, no. 1, February 2024, pp. 259-278, doi: 10.31352/JER.22.1.259.
- [19] C. Park, J. Hwang, "A study on parents' perceptions on consolid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vol. 8, no. 3, December 2023, pp. 1-22, doi: 10.52384/JECEC.2023.8.3.1.
- [20] Y. R. Jeong, J. Y. Kwon, "Discourse analysis on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mong parents of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44, no. 2, March

2024, pp. 203-229, doi: 10.18023/kjece.2024.44.2.009.

- [21] H. Y. Kim, J. H. Jung, “Exploring the Play Perspective of Mothers who sent their Children to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Implementation Institution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 34, no. 1, March 2024, pp. 29-54, doi: 10.21024/pnuedi.34.1.202403.29.
- [22] P. Won, “A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major polic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Korea, KIPA Research Report 2002, December 2002. [Online]. Available: [https://www.kipa.re.kr/synap/skin/doc.html?fn=FILE\\_000000000007560&rs=/convert/result/201512](https://www.kipa.re.kr/synap/skin/doc.html?fn=FILE_000000000007560&rs=/convert/result/201512).